

# 지역개발 협의회 출범 · ESG경영 '주 성과'

##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 취임 1년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자해 만든 지방공기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북특별 자치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최정호 사장은 취임 1년을 맞아 "지 난해 3월 취임과 동시에 공사가 관리 하는 전주평화 국민압대주택 현장 등 을 방목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시작으로 씬임이 달려온 것 같다"며 "전북개발공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 되기에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수익사 업 발굴에도 공사 지속가능경영 실현 에 기틀을 다지는 한해가 아니었나 생 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사장은 취임 첫해인 2023년 주요 성과로 먼저, 기업 경영에 가장 중요 한 자본금 증가 추진을 들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전북도에서 우선 500

억원의 증자요청을 승인했고, 도의회 에서도 출자 동의안이 원안 가결 됐다 고 했다.

최 사장은 공사가 주도적으로 지역 개발에 앞장서기 위해 '지역개발 협의 회'를 출범한 것을 두번째 성과로 들 었다. 공사 전북도 14개시·군, 전북 연구원이 함께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 해 구성된 상생·협력 체계로 이를 통해 전북특자도 발전 견인에 전북개 발공사가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사장은 조정방향에 맞는 중 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한 것 또한 성과 로 들었다. 최 사장은 취임후 바로, 중 장기 경영전략과 ESG경영전략을 수립 합과 동시에 대내·외 새로운 미션· 비전을 선포했다며 미션은 '지역개발 선도도 도민행복 실현'이며, 비전은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라고 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해 만든 지방공기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 개선을 성과로 봤다. 더불어 사업량 증가에 따른 필요인력 을 올해 상반기 중 9명 정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정호 사장은 신규사업 발

굴을 위한 IT구성·운영, 사회적 가치 확산, 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긴급현안 해결, 안전 및 인권 강화 직원과의 소통 및 복지강화 등 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전북농협은 지난 22일 KBS전주방송총국에서 전북경찰청, 전북은행 등과 함 께 '전화금융사기 예방 운동'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전화금융사기 예방 운동'

### 전북농협, 전북자치도 · 유관 기관 협약 체결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난 22일 KBS전주방송총국에서 KBS전 주방송총국,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전북경찰청, 수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은행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예방 운동'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이날이 들어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자 KBS전주방송총국이 주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내 유관 기관들과 함께 공동 협약을 통해 도민을 대 상으로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2023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 하기 위해 경찰청 112시스템과 학 라인을 구축했고 '찾아가는 어르 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을 실 시했다"며 "앞으로도 전화금융사 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유관 기관들과 함께 펼치며 고객 님들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지난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전주천에서 '줍깅(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송호석 전북환경청장, 세계

### 물의 날 기념 전주천 '줍깅' 진행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지난 22 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전주천(국 가하천승격구간)에서 방치된 영농폐 기물 낚시어구 등을 수거하는 '줍깅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지방환경청 주관으 로 전북, 완주군 수자원공사 전북지 역협력단, 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전 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 환경 유관기 관 8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쓰레기 약 1.5톤을 수거했다.

송 청장은 "물해 물의 날 주체처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누리기 위해선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때"라면서 "설거지용 이용하기, 세제사용량 줄이 기, 하천 산책 시 쓰레기 줍기 등 생활 속 실천행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 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수백억 적자' LX공사... MZ직원들, 내가 사장이면 이렇게

### 2022년 110억 · 작년 560억 적자 · 올해 700억에서 800억 가량 손실 예상... MZ세대와 경영위기 소통

"회사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해 봤 다. 업무용 차량을 셀프 세차하는 등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참사 이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LX국토정보공사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의 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LX공사는 전날 LX서울본부에서 어 명소 시장과 40대 이하 직원들로 구성 된 내부 위원회인 '제4기 밀레니얼 얼 보드' 위원(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 위기 속, 내가 사장이라 면?'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들은 LX공사의 조직 위기 진단 부터 위기 극복 방향까지 경영 전반 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 위원은 "조직 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충분한 위기감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렇



LX공사는 전날 LX서울본부에서 어명소 시장과 40대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 위원회인 '제4기 밀레니얼 보드' 위원(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 위기 속, 내가 사장이라면?'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를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된 위기감을 건설적 위기감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경영진의 명확한 방향 제시와 유대감 형성이 중요하다"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자기개발 휴직은

본인이 한 단계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공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을 제시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위원도 있었다. 한 위원은 "회사돈을 내 돈 이라고 생각해 봤다. 경영 위기 상황 에서 업무용 차량의 세차도 셀프 세 차하는 등 적은 비용부터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 마케팅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위기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 육아휴직 기간의 근무 기간 인정 등의 아이디어가 이어졌다.

어 사장은 "우리가 한마음으로 단 결하고 힘을 합친다면 분명히 위기를 이겨내고 더 단단하고 건설한 LX 공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 중기청 장기근속 무주택자 대상, 주택 특별공급 총 30세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 기업청(청장 인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중인 근로자 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

급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제외업종은 일반유통 주점업, 무도유 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 시

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이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봉동 한양 립스 센텀포레'는 한양건설에서 시공 하는 아파트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읍 입지 48-4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30세대(확 정추천 5세대 + 예비추천 25세대)이다. /김옥기기자

## 전기안전공사, 영유아 · 장애인 대상 재난대피 훈련

한국전기안전 공사는 지난 22 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재난위 기 상황 대처 능 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유아· 장애인을 대상으 로 재난대피 훈 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일 상생활 속 개연 성 있는 재난 상황 연출로 재난 취약 계층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대한적십자사·장애인고용 공단 전북지사, 전북혁신도시 소재 유 치원 원생과 학부모 등 4개 단체 200 여명이 참여했다. 또 장애인 배우와 스태프들도 함께했다.

전기 안전 뮤지컬 공연을 관람 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하 훈련은 실제 상황처럼 긴박하 게 이뤄졌다.

특히 대피 훈련 이후에는 건축물 붕 괴, 폭발 화재, 정전 등 재난 유형 별·상황별 행동 요령과 심폐소생술



등 맞춤형 안전교육도 진행해 훈련의 실 효성을 높였다.

박지현 사장은 "몸이 익힐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재난 예방책"이라며 "앞으로도 안전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대피 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으로 국가 재난관리 책 임기관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년 전 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발달장애인 으로 구성된 '유니버설 안전예술단'을 창단, 올해로 5년째 생활 속 전기 안 전을 주제로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 다. /뉴스

